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실현 위해 4대 목표, 3대 전략, 추진과제·사업 필요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한반도 시민 건강안보 위한 사전 예방작업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은 남북한 주민 또는 서울과 평양 시민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안보 문제이다. 세계적인 도시이자 수도인 서울은 통일 과정과 이후 국내외의 많은 사람이 오가며 접촉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는 그만큼 감염병과 질병의 확산 가능성을 높여 시민의 건강권(건강안보)을 위협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은 한반도 시민의 건강안보를 위한 사전 예방 작업이다.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보건의료 격차 줄여 통일 후 사회통합 기여

통일 이후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서독과 동독은 가장 먼저 보건협정을 맺었다. 남북한과 비교해 비교적 경제적 격차가 작았던 동서독도 통일 이후 지금까지 사회 갈등이 존재한다. 남북한의 커다란 보건의료 격차는 통일 한국의 또 다른 사회 갈등 원인이 될 것이다.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은 통일 한국의 보건의료 격차를 줄여 나가는 사회통합의 한 준비 작업이다.

북한 보건의료체계, 대북제재·코로나19·자연재해 '3중고'로 매우 심각한 상황

대북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는 북한의 경제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은 사실상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켰다. 북한 인구의 절반은 기본적인 위생시설과 양질의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난 또한 북한

주민의 건강 악화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 외부의 보건의료 지원·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은 정권, 경제난에도 애민정치 중 하나로 보건의료 문제 해결에 총력전

김정은 정권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이라는 애민주의를 강조하며 보건의료 문제 해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대화를 위해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자발적 국가 보고서에서도 예방의학,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난과 코로나19, 자연재해는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 개선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WHO 등 다자기구 중심으로 추진 추세

1995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 규모는 지출액 기준으로 총 28억 9,200만 달러이다. 이 중 보건의료 지원 규모는 전체 대북 지원의 10%인 2억 8,662만 달러이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기초보건에 2억 5,106만 달러, 인구정책/생식보건에 2,316만 달러, 보건 일반에 1,408만 달러이다. 이는 통합적 인도적 지원에 포함된 긴급 의료지원은 제외된 규모이다.

주요 대북 지원 주체는 글로벌펀드(Global Fund),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세계식량기구(WFP), 유니세프(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UNFPA) 등의 다자기구로 전체 보건의료 원조 규모의 93%를 차지한다.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지원은 7%를 차지하며,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대표적이다. 민간재단 중 빌&멜린다게이츠재단이 대북 보건의료 지원 경험이 있었다.

우리 정부,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주로 국제기구·민간단체 활용해 추진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대북 보건의료 지원 규모는 3억 8,463만 달러로 전체 무상지원의 17%, 긴급/개발지원의 38%를 차지했다. 주요 분야는 기초보건(30%), 모자보건(26%), 보건인프라개선(24%), 결핵(15%), 말라리아(3%), 기타감염병(2%) 순이었다. 정부는 주로 UN 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6곳이 대북 보건의료 지원을 꾸준히 추진했다.

이 연구,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실현 위해 4대 목표·3대 전략 제시

서울시는 강점 및 약점, 기회 및 위협요인 등 대내외적 추진 환경과 북한의 수용성(니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양(북한)과의 보건의료 지원·협력의 목표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그 목표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 번째는 북한 주민의 질병 치료와 예방, 건강 증진이고, 두 번째는 북한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제고이다. 세 번째는 서울-평양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네 번째는 한반도 건강공동체 실현이다.

이러한 목표 아래 서울시는 3가지 방향에서 전략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은 질병 치료 강화이다. 두 번째 전략은 질병 예방 및 건강 강화이다. 세 번째 전략은 보건의료 역량 강화이다.

서울시, 4대 목표·3대 전략 아래 단기·중장기·장기 추진과제·사업 시행해야

평양과의 보건의료 지원·협력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단기 추진 과제는 감염성 질병 치료와 긴급 영양 지원이다. 세부 추진 사업으로 북한 보건의료 실태 파악을 위한 서울-평양 공동조사 및 전문인력 파견, 감염성 질병 치료 지원, 긴급 영양 지원과 위생용품 지원이 있다. 서울시의 중장기 추진 과제는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 지원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비감염성 질병 치료 지원과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한 자연 및 생활환경 개선,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현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장기 추진 과제로는 북한의 기초 보건의료 시스템 정상화이다. 추진 사업은 북한의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서울-평양 간 보건의료 분야 연구인력 및 관련 종사자 교류, 지속가능한 서울-평양 보건의료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다.

